

시끌벅적 e-스타



대학생들이 가장 자주하는 거짓말은?

4월1일, 거짓말도 애교로 넘겨 준다는 만우절이 지났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만우절 단 하루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 생활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짓말,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대학생들은 이런 거짓말 꼭 한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13만 네이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파제는 다했지만 프린터가 고장 나서.., 내일까지 꼭 제출하겠습니다."

5위는 과제물 기한을 넘겼을 때 교수님께 하는 거짓말이다. 밥 먹고 술 마실 시간은 있지만 과제물 처리할 시간은 없는 대학생의 삶이다. "여제 책 한 자도 못 보고, 시험 완전 망했어"

4위 친구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대학생에게는 친구도 경쟁상대다. 시험 망했다는 거짓말, 하지만 성적표에 즐비한 A+. "오늘만 먹고 내 일부부터 다이어트 한다.", "잠깐 눈 붙이고

시험공부 해야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은 3위다. 결과는 늘 똑같다. 변함없는 몸무게, 그리고 늘 모르는 문제 투성이시험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어."

2위는 애인에게 하는 거짓말. 애인 몰래 나가는 미팅에는 친구들이 방해막이다. 어디 그뿐인가. 너만 사랑해, 벨소리 못 들었어. 지금 가고 있어 등 애인에게 하는 거짓말은 무궁무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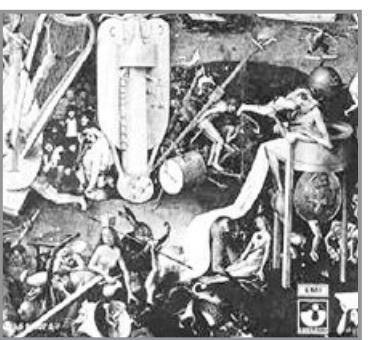
알고도 속아주는 척, 몰라서도 속는 '부모님' 그들에게 하는 거짓말 1위다.

세월이 변해도 변함없는 대학생의 무기는 엘티와 책값이다. 귀가가 늦어지거나 외박할 때 '엄마 엘티 가!' 이 한 마디의 혁력은 막강하다.

학기 초반 책값으로 불리는 용돈도 짭짤하다. '엄마 책값 15만원.' 정작 교재 장만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본비 3만원. 나머지는 다 용돈이다. /김여울기자 wool@



박용수의 패스 칼럼



4월이 되면 우리는 T.S. Eliot의 황무지의 첫 구절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을 떠올린다. 온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는 4월이 왜 잔인하게 느껴질까? 이 시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다시 봄이 되어 버거운 세계로 돌아와야 하는 모든 생명체의 고뇌를 묘사한다. '망각의 눈'에 싸인 겨울은 차라리 평화롭지만 다시 움트고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4월은 잔인하다고 했다. 봄의 따스함과 화려함에 정신적인 우울함과 황량함이 그 어느때보다 뒷받침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정신은 소생하기 시작하는 자연과 호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겨울과 마찬가지인 황무지로 남아 있기에 4월은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잔인하게

연주한 John Lord에게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곡이기도 하다. 러닝타임 12분이 넘는 대곡인 April은 3부작으로 되어있는데 비발디의 사계를 악 음악으로 재현한 느낌도 준다.

John Lord의 장중한 해먼드 오르간 연주에 이은 리치블랙모어의 간결한 기타연주는 이안페이스의 드럼과 함께 4월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느낌을 준다. 이 부분은 많은 DJ들이 한번쯤은 시그널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어지는 해먼드 오르간과 피아노, 두 대의 플롯과 오보에, 임글리쉬 헤론과 두 대의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콜로가 펼치는 너무도 훌륭한 8분여의 연주는 아름다우면서 지극히 서정

락 클래식의 명곡 Deep Purple의 'April'

느껴지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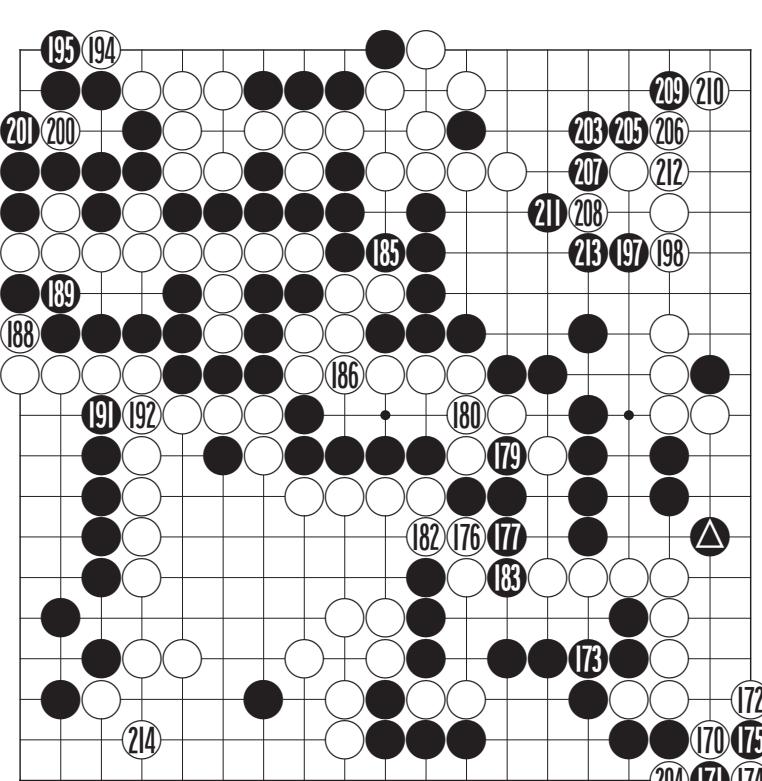
이 시처럼 4월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음악 중의 하나가 Deep Purple의 'April'이다. Deep Purple은 기타리스트 리치블랙모어의 이모님이 좋아하는 노래 제목 'Deep Purple'를 그림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곡은 바로 지난주에 소개한 에이프릴 스티븐스가 불렀던 곡이다.

69년에 발표한 이 곡은 초기 Deep Purple이 발표한 최고의 음악이며 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 King Crimson의 Epitaph과 함께 3대 락 클래식의 명곡으로 남아 있다. Deep Purple의 음악은 이안 길린이나 데이비드 커버데일이 활동했던 시기의 음악이 더 많이 알려졌지만, 초기 Deep Purple의 음악은 고전 음악을 근간으로 사이키델릭과 클래식을 바탕으로 응장하고 스파이더 하드록을 추구했다. 초기 보컬을 맡은 로드 에반스의 마지막 히트곡인 이 곡은 그가 부른 또 하나의 명곡 'Anthem'과 함께 나에게 락 음악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초기 Deep Purple 음악의 중심은 키보드를

적인 황홀한 실내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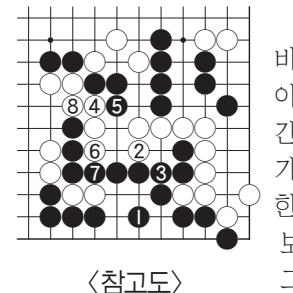
경렬한 기타연주와 함께 시작되는 로드 에반스의 목소리는 'April Is Cruel Time'(4월은 잔인한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4월 태양이 서서히 떨어질 때 세상은 그늘져 보인다고 노래한다. April의 음악적 시도가 황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12분여의 음악이 끝난 뒤 주위의 모든 것이 정지되어버린 듯한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 곡을 끝으로 보컬이었던 로드 에반스는 그룹을 떠났고, 이후 Deep Purple은 찾은 멤버 교체로 봄을 맞이하기 위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 곡은 그들의 명운을 예언하듯 그렇게 탄생 했다.

4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동안 April은 봄을 기다리는 겸허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차기운 겨울 북풍을 맞으며 결실의 꽃망울들을 터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 아직은 이를 봄, 잔인한 달 4월을 희망의 달, 가장 아름다운 달로 만들어보자. 온 세상의 만개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팝컬럼니스트·광주교통방송 '남만이 있는 곳에' 진행〉



이길 수 없는 꽂놀이 패 12보(170~214)

白 강지수 5단
(문성중 2)
(동일전자공고 2)



흑 ▲로 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비수를 들 수로는 '참고도'의 흑 1에 두어 패를 이대는 순 해소하고 싶으나 그러면 백 2가 선수가 되어 8까지 깨끗하게 연결해가게 된다. 결국 174로 집어 넣어 또다시 헌지대패가 벌어졌다. 부분적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강지수군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170으로 젓고 172로 호구를 친다. 이것은 다음의 진행에서 보는 것처럼 패를 하겠다는 것. 팻감은 백이 많다는 외침이다.

임지성군은 결사의 각오로 흑 173에 이어 잡고 나섰는데 불리한 흑

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비수를 들 수로는 '참고도'의 흑 1에 두어 패를 이대는 순 해소하고 싶으나 그러면 백 2가 선수가 되어 8까지 깨끗하게 연결해가게 된다. 결국 174로 집어 넣어 또다시 헌지대패가 벌어졌다. 부분적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강지수군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170으로 젓고 172로 호구를 친다. 이것은 다음의 진행에서 보는 것처럼 패를 하겠다는 것. 팻감은 백이 많다는 외침이다.

임지성군은 결사의 각오로 흑 173에 이어 잡고 나섰는데 불리한 흑

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패이며 문제다. 백은

좌상쪽에 팻감이 많은 반면 흑은 쓸곳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03에 두었으나 백 204로 떠려내는 순간 바둑도 끝나고 말았다.

178, 184, 190, 196, 202~174, 181, 187, 193, 199~175.
〈오큐월 9단·본보 바둑하설위원〉

바둑소식

한국, 정관장배 우승 눈앞

이민진 5단이 제6회 정관장배 세계 여자바둑최강전 2연승을 거뒀다. 이민진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일본의 마지막 주자인 가도 게이코 6단을 280수면 6집扳으로 꺾었다. 이로써 한·중·일 3국의 여류기사 5명이 출전해 연승전 방식으로 대결하는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전원 탈락했다.

한국은 이민진을 비롯해 박지은 9단

이 베티고 있어, 루이아이웨이 9단만

이 남아 있는 중국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 됐다. 이미진이 3일 루이아이웨이를 이기면 한국이 우승하게 되고, 질 경우 마지막 남은 박지은과 루이아이웨이가 최종전을 갖게 된다.

/오광철 9단·본보 바둑하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일(음 2월 27일 육묘)



36년丙子생 좋은 일이 생길 수니 기대해도 좋다. 48년庚子생 딸 조심을 해야 한다. 60년壬子생 뜻하는 일은 이루어지니 소득은 비켜간다. 62년壬午생 하루가 되지 않아도 흔들리거나 소득은 약간 있다. 행운의 숫자 : 09, 36



37년丁丑생 작은 병을 살펴보라. 49년己丑생 분수를 지키면 화도 비껴간다. 61년辛丑생 육십을 버리라. 73년癸未생 인생행로에 변화수가 보이니 살펴보라. 85년乙未생 여우 있게 생각하면 계획은 풍성하게 성사되어 큰 득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40



38년戊寅생 황태어에게 물려가도록 정신을 차리면 소화에 그친다. 50년庚寅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됨. 62년庚寅생 협력자는 나타나니 큰 도움은 된다. 74년甲寅생 과유만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7, 25



39년己卯생 놀라운 일이 생기지만 큰일은 아니다. 51년辛卯생 화를 진정해 면우리가 좋은 일은 재물과 얻으리라. 63년癸卯생 옛 일을 잊고 새로운 일을 보려고 노력하라. 75년乙卯생 며칠 전 자신사이에 불편사건이 발생해 그해에는 괜찮은 운이 된다. 행운의 숫자 : 14, 38



40년庚辰생 새로운 문서에 잘못이 발생할 수도 있다. 52년壬辰생 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집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64년甲辰생 저울을 어려워나 나누는 내 사람을 쉬워진다. 76년丙辰생 며칠 내고 나가보라는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29



41년辛巳생 지난 일이 괴롭힐 수 있으니 옛 일을 살펴보라. 53년癸巳생 미운사람이 부질없는 변화를 삼가 하라. 65년乙巳생 친할수록 조심하라. 우연이 개질 수도 있다. 77년丁巳생 눈물이 보일 수니 조심해서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 03, 45



42년壬午생 애정문제로 구설수가 생겨나니 명예가 걱정된다. 54년甲午생 인생의 경험이 후반전의 전략이나 지혜를 통해 행운이라. 66년丙午생 아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78년戊午생 친구의 도움이 설립하니 염성을 끌려다. 행운의 숫자 : 01, 35



43년癸未생 내년은 남편을 남편은 내년을 기다린다. 55년乙未생 남편이 고민한다. 옆에서 살펴보라. 67년丁未생 친구의 지혜를 빌려 손실을 줄일 수 있다. 79년己未생 꿈을 보다 경험이 우선이다. 선배의 도움을 청하라. 행운의 숫자 : 01, 35



44년甲申생 고집이 따를 수 있으니 신심을 굽건히 하라. 56년丙申생 미련 준비하면 실미령이 보인다. 68년庚申생 흰 암배를 조절하면 멘사가 형통한다. 80년戊申생 친절한 접근자의 말은 속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8, 32



45년乙酉생 진짜를 분명히 하라 득과 실이 교차된다. 57년丁酉생 생 자녀의 고충이 보이니 대화하면 풀리라. 69년庚戌생 불연이면 이별을 있으니 대화로 해결하라. 81년辛酉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평온하다. 행운의 숫자 : 04, 42



46년丙戌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이 풀려나다. 58년戊戌생 순리를 역유하니 결과는 없다. 70년庚戌생 이성으로 마음이 험길리니 중심을 찾아라. 82년壬戌생 큰 일은 아니니 울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미움을 머물라. 행운의 숫자 : 06, 28



47년壬戌생 구설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59년己戌생 망신살이 암려되니 지난 일을 회개하라. 71년庚戌생 꿈을 맑게 부구나니 주변에 배풀이라. 83년葵戌생 잔고 글에 악수 나오니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단하라. 행운의 숫자 : 02, 43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 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31>

What is your reason for leaving?

왜 그만 두려고 하는 거지?

A: Tomorrow is going to be my last day.

B: What is your reason for leaving?

A: I'm moving to NamWon with my parents.

B: Well, we'll miss you.

A: 내일이면 나도 끝이다.

B: 왜 그만 두려고 하는 거지?

A: 나는 남원으로 가려고 해. 부모님하고 함께 살려고 말이야.

B: 음, 우리는 너 보고 싶을 것 같아.

* 자네 계획이 뭔데?

= What is your plan?

* 그 사람의 논점이 뭔데?

= What is his argument?

* 그 거래에 무슨 문제 있는데?

=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deal?

오하요우 니혼고 <1131>

本音(ほんね)と建前(たてまえ)というのがありますから

본심과 표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